

종교·복지

이주가족복지회, 이주여성 산전도우미 파견사업



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코스비야르 마르티(오른쪽)씨가 지난 10일 임신 7개월인 몽골 여성 솔렘잡츠 나란투야씨의 집을 찾아 임신 기간 동안 주의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있다.

“친정 엄마가 따로 없어요”

다음달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몽골 여성 솔렘잡츠 나란투야(27·광주시 서구 양동)씨는 이번 달로 임신 7개월을 맞는다. 몸이 무거워진 것은 물론, 전에 비해 신경도 조금 날카로워졌다. 한국이 구사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여서 병원을 다니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100% 알아들을 수 없다. 특히 입덧이 심해 맵고 찬 한국 음식은 되도록 멀리하고 있다. 첫 임신이어서 모르는 게 많지만 그 때마다 몽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 이런 나란투야씨에게 최근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 이주가족복지회(이사장 이상옥)가 이번 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주여성 산전도우미 파견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마르티씨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이주가족복지회에서 실시하는 4주짜리 단기 집중 산전도우미 교육도 수료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고 대개 중인 산전도우미들은 모두 14명. 서비스를 신청한 임신 이주여성이 4명에 불과해 실제 서비스에 투입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

병원 동행, 육아정보 제공...

이주가족복지회 기정현(37) 사무국장은 “이주여성들은 여성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임신 기간 동안 여는 한국 여성과는 달리 더 예민해진다”며 “초임 여성들은 임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대부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여성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해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가족복지회는 광주시의 여성발전기금 460만원으로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다. 도우미로 파견되는 이주여성에게는 하루 3만원의 일당이 주어진다. 이들은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산모의 집으로 한 달에 3회 가량 방문해 병원 동행, 태교, 라마즈 호흡법, 출산 전·후 영양·마사지·육아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친한 언니 생겨 심적 안정”

지난 10일 처음으로 산전도우미 마르티씨를 맞이한 나란투야씨는 “임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줘서 좋을 뿐 아니라 친한 언니가 하나 생긴 것 같아 심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며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매개로 만났지만 앞으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될 것 같다”고 웃었다.

마르티씨는 “처음 임신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며 “이주여성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우미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363-2963.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4주 산전도우미 교육 수료

몽골 출신이면서 한국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코스비야르 마르티(34·광주시 남구 월산동)씨가 나란투야씨의 임신부 생활을 돕게 됐다. 3년째 광주에서 살고 있는 마르티씨는 17개월 된 아들을 둔 엄마로서 임신 기간의 경험을 들려줄 수도 있고, 나란투야씨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함께 수다를 떨어줄 수도 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무료 문화센터 등을 운영해 요가나 체조교실 등 산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주여성들엔겐 대우를 받지 못한다. 기 사무국장은 “큰 병원이면 비싼급이라도 통역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주여성들은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출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더 세심한

단신

마가 스님, 광주 등 순회강연

재미와 감동을 주는 강의로 불교 신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마가(사진) 스님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광주 원각사에서 강의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강연을 갖는다. 이번 순회강연은 9월12일 천안 부루나유치원까지 모두 9차례 진행된다. 마가 스님은 청중의 특성에 따라 부부 준비명상, 자녀교육을 위한 준비명상, 직장인을 위한 준비명상, 교사들을 위한 준비명상 등 맞춤형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문의 02-420-3300.



전국 십자가 퍼레이드

2007 부산-관문점-평양(PPP) 십자가 대행진 조직위원회(대회장 김영진)는 다음달 6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인천, 수원, 서울, 판문점으로 이어지는 십자가 퍼레이드를 시작한다. 9월에는 22~26일까지 개성 및 평양에서 행진이 이어진다. ‘회개와 화해 그리고 부흥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십자가대행진은 40kg의 십자가를 메고 주유도시 시가지 행진을 한다. 문의 02-3473-1772.

크리스천 대학생 아트캠프

개신교 신자이면서 예술 작업을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2007 여름 크리스천 대학생 아트캠프’가 열린다. 다음달 14일부터 3박4일 동안 광주시 북구 일곡동 새순교회. 이번 행사의 주제는 ‘Change Connection!(관계를 바꾸라)’으로 시작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또는 젊은 작가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오익석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강의를 비롯한 산배 작가와의 만남, 광주지역 갤러리·미술관·아트 스튜디오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문의 011-9289-9147, www.artslove.org

종교칼럼



김정용

따뜻한 밤과 같은 문화

리나라 문화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뜻보다는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에서 광주의 발전전략으로서 문화를 부각시킨다는 의미로 들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개념 역시 좀 더 겸허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주의 문화도시건설계획의 핵심은 무엇보다 문화를 통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문화 개념은 지역경제발전, 산업화, 수출 등과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개념은 광주가 자랑삼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개념이나 예향의 도시로서의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문화는 사나나 실에 들어앉아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화는 단순히 밥을 배듯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정한 문화는 단순히 장사속으로 사람들의 소비욕망을 일깨우는 것이거나 문화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우월적 지배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감수성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관계와 삶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행위가 바로 감수성이다. 이 존재행위로서 감수성은 세상과 인간 그리고 다른 문화를 향한 열린 마음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기초월적이고 전복적 힘이며 역동성이다. 이 감수성의 심층을 열고 일깨우는 것이 광주의 정신을 문화에 담는 것일 것이다.

광주의 미래적 문화도시로서의 진면목이 흑어 문화장사처들의 발발이 터전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소박한 일상의 삶의 공기처럼 그렇게, 사교할 수 없고, 지배할 수도 없고, 폐쇄적인 집단의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전유물을 시도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따뜻한 밤 한 그릇 같은 문화의 도시를 그려본다.

(신부·광주가톨릭대학 교수)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몽골 울란바토로서 봉사활동

33명, 시설 증축 등 도움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 국제봉사단 ‘따뜻누리 5기’는 19일부터 8월2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로 외

곽 암갈량 지역의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봉사단원 33명은 이 본부의 홍보대사인 탈렌트 양미경(사자)씨와 함께 돈보스코 청소년센터의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활동을 펼친다. 봉사단원은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벽돌 만들기, 축사와 교육 시설 증축, 운동장 평탄화 작업 등을 할 예정이다. 돈보스코 청소년센터는 살레시오가 2001년 개설한 것으로 울란바토르 빈민촌의 고아와 가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연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deung, Mudeung, Jeongwoo, Cheondan, Gukmin, and Daedubu. Each ad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property details.